

‘NO 재팬’ 하려면 ‘KNOW 재팬’ 먼저

시민자유대학, 가을학기 11인 강좌 눈길
 위안부·강제 징용 등 현주소 점검
 일본 정치·경제·사회·문화 조망
 특별답사 ‘Fall in Art’도 진행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NO JAPAN, NO 아베”를 외치는 시민들의 분노가 여전한 지금,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고찰하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을 넘어 ‘아는 것이 자유’인 삶의 터전을 지향하는 시민자유대학이 마련한 ‘KNOW JAPAN’이 그것. 강의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광주교육연수원 기쁨관 중강당(오전)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응 차원에서 기획됐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그 배경인 위안부 피해 문제,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한일관계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첫 시간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 경제침략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최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제 분업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회복 성격을 규정하고 전망한다.

제2강은 김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근대 일본 국제질서관의 계보’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김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포스트 제국’ 시대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제 질서의 새로운 재편 관점에서의 경제 회복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대일관계 강좌도 있다. 제3강은 남기정 서울대 일본학과 교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일본의 재무장론, 보통국가론, 평화



김항 교수



최배근 교수



박규태 교수



남기정 교수

주의 등을 다룬다. 제4강과 제5강은 박수철 서울대 동양학과 교수와 김성은 전남대 일어일본학과 교수가 각각 ‘근현대 일본의 ‘시작’과 에도시대’, ‘근대 일본의 힘: 번역’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6강은 하중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가 ‘한일 역사 갈등, 그리고 일본의 보수와 진보’를 주제로 양국의 역사 갈등이면에 드리워진 문제와 일본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 등을 고찰할 예정이다.

제7강은 김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음)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주제로 과거사와 맞물린 양국의 갈등 관계 등을 강연한다.

‘일본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손꼽히는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 ‘국화와 칼’을 재해석해 일본의 문화코드를 읽는 시간도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데티트의 명저인 ‘국화와 칼’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책의 번역자인 박규태 한양대 일본어학과 교수는 제8강 ‘일본문화코드: ‘국화와 칼’ 다시 읽기’에서 일본문화의 불변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를 유기적으로 이해

하는 시각을 가질 예정이다. 제9강은 이영진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전쟁-기억과 애도의 정치’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마지막 10강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 이념의 주제화: 시민, 자유, 정의’. 박규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시민자유대학 이사장)와 조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시민자유대학 학장)가 시민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화요일 예술과 미학 ‘사건과 영화’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소극장), 수요일 특별강좌 ‘중세 철학의 얼굴들’ (전남대 인문대 1호관 106호), 목요일 동서양고전강좌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전남대 인문대 1호관 313호) 등도 진행된다.

한편 토요일에는 특별답사 ‘Fall in Art’가 광주 및 담양 미술관, 신생예술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번 답사는 ‘2019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지원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무료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회원과 후원자가 우선 참여한다. 강좌 관련 수강신청은 시민자유대학 다음 카페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는 평일인데도 수많은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인 만큼 연중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이날은 유독 외국인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일부 단체 여행객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한 ‘HAEUNDAE’ 조형물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에 바빴다.

비단 해운대만이 아니었다. 1박2일 동안 취재차 둘러본 부산 도심의 주요 명소들은 관광객들로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건 대형 플래카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었다.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해 가까이 다가가기 오는 11월25~27일까지

회의’ 개막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내놓았다. 뉴스가 끝나자 지난번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삼 기분이 묘했다. 왜 이런 빅 이벤트가 정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열리지 않는 것일까.

물론 아시아와 관련된 모든 대형 행사들이 광주에서만 개최돼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관 3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이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면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2017년 해운대에 문을 연 아세안문화원의 경우 다문화 관련 전시와 문화체험시설, 정보센

문화전당은 안녕하신가?

부산백스코와 누리마루 APEC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홍보하는 현수막이었다. 아마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각국의 실무팀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듯 보였다.

순간, 정부의 최대 국제행사라 불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가 아닌 부산이라는 게 조금은 의아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솔직히 많이 아쉬웠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된 건 추석 연휴, TV뉴스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정치적으로 향인 부산을 찾아 추석 다음날 해운대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문화원 관계자들로부터 개막 2개월여 앞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으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방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미공 정상

터, 공연장, 연구시설 등 상당부분이 전당의 기능과 중복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서울과 광주의 문화전문가들이 아세안문화원 설립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겠는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가 담긴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전당 개관 이후에 피부로 와 닿는 효과와 시너지는 여전히 느끼기 힘들다.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지역의 책임도 있지만 전당장 공식, 지역사회와의 불통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문재무제 1차관 직속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발족해 전당의 정상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젠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모아 야 할 때다. 더 이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퓨전·대중가요·전통음악...삶·숨·쉽이 있는 흥겨운 문화마당

창작국악단 ‘도드리’ 21일 곡성 봉정분교

‘삶·숨·쉽이 있는 흥겨운 문화마당’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곡성군 죽곡 봉정분교 목공예&커피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섬진강 아리랑 III’ 시리즈이자 전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남도르네상스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행사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전남지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곡성군,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다.

식전 공연은 오후 3시 30분 죽동농악팀(전남무형문화재 제 35호)의 ‘죽동농악 한마당’으로 펼쳐지며, 본격적인 공연은 비보이 그룹 ‘잭팟크루’의 공연 ‘옹헤야’로 막을 올린다.

도드리는 오후 5시부터 무대에 올라 퓨전, 대중가요, 전통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펼친다. 이날은 2019 창작 위촉곡 ‘남도길’, ‘가을산책’과 함께 ‘심정별곡’ (2017년 위촉곡), ‘천년사랑’ (2018년 위촉곡) 등을 무대에 올린다. ‘내사랑섬진강’, ‘심곡성아리랑’ 등 국악가요와 ‘섬진강’, ‘고구려의 혼’ 등 국악관현악곡도 있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공연 모습.

따라 선보인다.

도드리가 죽동농악팀과 함께 펼치는 2019 창작 위촉곡 ‘상모춤과 휘모리에 놀다’, ‘잭팟크루’의 비보이 춤사위와 결합해 선보이는 ‘Contemporary 아리랑’ 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임산물·목공예 판매장터’가 열리며,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목공예 체험과 커피 체험(사전 예약자 대상)을 즐길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어린이목수축제’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오는 23일까지 ‘어린이목수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0월 4~6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광주지역 4~6학년 어린이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축제, 지역 예술가와 함께 목공기술로 스스로 짓고 만드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노작형 예술캠프다.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정민룡(북구문화의집), 백민(놀이패시닝), 이세현(작가)과 신양호 등 7명의 지역 예술가가 함께한다.

참가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샤시 + 피엔에고샤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웃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파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옆길)
 하모(침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